

금호, 합성고무 1위 “절대 고수”

박삼구 회장 체제 출범 1주년 ... 타이어 사업 구조조정으로 재도약

금호그룹이 박삼구 회장 체제 출범 1주년을 맞아 기존 사업의 확장으로 1등 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사업 발굴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했다.

박삼구 회장은 9월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존 사업의 경영합리화 및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명공학, 신소재에 대한 투자 등 미래 신규사업 기반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성장전략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구조조정 계획과 관련해 하반기 중 아시아나 공항 서비스와 광주 광천동 터미널부지 일부, 영등포빌딩 등을 매각하는 등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2007년에는 매출액 11조1500억원 달성에 영업이익 1조3000억원을 이루고 2010년에는 세계 5위의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야심찬 중장기 계획을 제시했다.

박삼구 회장은 취임 이후 그룹 최대 현안이었던 금호타이어 매각 등 구조조정 작업을 진두지휘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경영능력 측면에서 상당히 검증받았다는 평가이다.

2003년 6월 말 완료된 타이어 자본유치로 총 3500억원의 현금유입이 이루어져 금호산업의 재무구조가 대폭 개선됐으며, 아시아나 케이터링사업부 매각으로 650억원, 금호석유화학 이천연구소 매각으로 88억원, 기타 금호산업, 금호석유화학 등이 보유하던 유가증권 매각으로 638억원의 개선 효과를 보았다.

타이어 자본유치를 비롯해 2003년 상반기 구조조정 실적만 총 5021억원이며, 앞으로 상시구조조정 체제를 갖추어 하반기에도 총 5106억원의 구조조정을 달성할 방침이다.

박삼구 회장은 “그동안 추진해 오던 구조조정을 완벽히 마무리하지 않고서는 비전 성취는 있을 수 없기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구조조정에 매진해 왔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박삼구 회장은 그룹 사업 가운데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는 아시아나항공, 타이어, 건설, 렌터카 등은 알려진 반면, 세계 위상에 비해서는 아직 미약한 부분이 있고 금호석유화학 등 그룹의 일부 주력기업은 규모에 비해 인지도와 이미지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에 따라 주가 저평가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IR 및 기업이미지 제고, 브랜드파워 강화 활동을 적극 펼쳐갈 계획이다.

특히, 화학부문은 영업력 강화 등을 통해 합성고무 국내 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중국, 동남아의 저가제품 공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한 품질로 승부하겠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9/03>